

되살림

2021 여수시 도시재생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살 맛 나는 우리 동네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기간 : 2020.11.13 ~ 12.18

신청자격

대상지 내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대상지 : 원도심 지역 및 여서·문수 지역, 읍·면 지역 (도서지역제외)

지원범위

1팀 당 300만원 ~ 1,000만원 ※10%이상 자부담
(사업기간 : 2021년 3월 부터 10월)

접수방법

방문접수 : 여수시 시청로 1길 23, 2층 도시재생과 공동체활성화 팀
(이메일로 원본파일 추가 제출 geumho15@korea.kr)

대상사업

주민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분야	사업내용 (예시)
공동체 활성화	· 마을축제, 체험프로그램, 음악회 및 전시회, 영화제, 거리공연, 취약계층 돌봄, 공동육아 및 밥상, 세대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마을 자원조사	· 역사·문화자산 조사 및 기록화(사진, 구술채록 등), 마을스토리, 마을신문, 홍보동영상, 마을(또는 상가)지도, 마을미디어(영상, 라디오 등) 등
소규모 환경개선	· 꽃길조성, 화단가꾸기, 안내판설치, 쓰레기문제해결, 골목길환경개선, 마을안전지도, 집수리 공동체, 마을환경 및 주거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주민활동 등
경제 활성화	· 공·폐가 조사 및 활용, 공유공간 프로그램 기획, 지역 창업 유도 프로그램,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 및 컨설팅 등

문의 |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659-5918

Vol.19
2020.12.11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 도시재생

여수시 마을활동가 일상

11/23 중화지구
집수리 사업 철거 작업 지원



11/30 중화지구
주민협의체와 전남도의원과의 면담



12/03 한려지구
한려동 주민회의 지원



12/08 한려지구
한지붕 한술밥 배움툼 텃밭작 2회차 지원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SNS

찾아오시는 길



연락처 : 061-659-5918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00-7(중화동) 2층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인턴 최선우입니다.



최선우 24살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막내 담당



Q. 도시재생 인턴을 지원한 이유?

A. 올해 2월에 졸업한 뒤, 고향인 여수로 내려와서 친구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탔어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도시재생에 대해 알아보다가 내가 여수 주민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A.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활동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한려동의 소규모 재생사업 모니터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카드뉴스 디자인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

Q.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보조로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에 가장 공감하였나?

A.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4강 때, 팀별로 살고 싶은 마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중 제가 속한 2팀의 “사랑하는 이웃과 행복한 삶을 꿈꾸는 공동체 마을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가기”라는 문장이 공감됐어요.



한 팀원분께서 “이웃끼리 서로 챙겨줘야 마을이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어릴 적 특하면 동네 친구 집으로 가서 밥 먹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친구네 어머님께서 귀찮을 법도 한데 친절하게 챙겨 주셔서 더 자주 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동네 역시 서로 정을 나누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Q.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보조로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함께 마을 문제를 발굴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중 <마을 공동 슈퍼 운영>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주거인구 대부분 고령층인데 거리가 가까운 동네 슈퍼가 없으니 장보기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을 협동조합 설립 후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마을을 위해 일정 수익 기부를 하는 목표를 세우고 배달도 하자는 운영 계획이 구체화되어 기억에 남았어요.

Q. 도시재생 뉴딜인턴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A. 한려동 소식지와 <공유부엌 : 오동동 한지붕 한술밥> 레시피북 만드는 업무를 맡았어요. 막상 업무를 맡으니 디자인 때문에 막막했어요. 디자인을 배웠더라면 모를까 디자인의 ‘디’ 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대리님과 방 팀장님의 도움으로 일을 진행하였고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한 가지 일을 끝냈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Q. 도시재생 뉴딜인턴을 하면서 느낀 점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A.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여수를 무척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여수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턴으로 일하면서 도시재생에 대해 배우고 지역주민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많이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7강 및 수료식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주민제안, 주민공모 기초이해
/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2층

12월 4일, 제1회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 7강 강의와 더불어 수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7강은 충남도립대학교 정대영 교수의 강의로 진행 되었으며 주민들과 함께 문수지구 주민협의체에 대한 운영 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1회 문수지구 도시재생대학에서 수료한 수강생은 25명이었으며 그중 김형곤 수료생이 대표하여 수료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문수지구 주민협의체 김건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다니며 주민들이 동네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앞으로 함께 희망찬 문수지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윤경 대리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수료식을 최소화하여 진행해서 아쉽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열심히 수강해 준 수료분들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대학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예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동네방네 배움틈-틈강좌’ 〈오동동 협동조합〉 선정

한려동 한지붕 한술밥
/ 수정동 경로당 2층 (한지붕 한술밥 공유부엌)

여수시 한려동 〈오동동 협동조합〉이 ‘2020년 동네방네 배움틈-틈강좌’에 선정되었습니다. 오동동 협동조합 이사장이자 강사로 선발된 김경주 님은 오동동 천연조미료와 해초류를 이용해서 요리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동동 천연조미료는 오동동 협동조합에서 제작해 ‘여수 감칠맛’, ‘매운 바다맛’, ‘엄니손맛’ 3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움틈-틈강좌’의 일일 강좌 운영 계획은 12월 7일 해초 김밥, 8일 해초 비빔밥, 10일 해초 주먹밥, 21일 해초 부침개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주 이사장님은 함께 요리하면서 건강과 영양을 챙기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움틈-틈강좌’는 도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 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생활권 평생학습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